

<9.24 유대종t 총정리 자료>

A4

(1) 마음이 어리석은 후니

마음이 어린 後(후)이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니님 오리마는,
지는 닙 부는 바람에 행혀 권가 흐노라.

● 전문 풀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 낀 산중이니 임이 올 리 없건마는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 도 행어나 임인가 하
고 생각한다.

1.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o,x)
2. 임에 대한 원망과 자책의 심정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o,x)
3. '바람'은 시적 화자가 예기치 못한 이별로 인해 겪는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이다.(o,x)
4. '만중운산'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단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o,x)
5.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확신의 어조를 보이고 있다.(o,x)

(2) 내 언제 무신하여

내 언제 무신(無信)하여 님을 언지 속엿관디
월침(月枕) 삼경(三更)에 온 뜻지 전혀 업니
추풍(秋風)에 지는 닙 소리야 님들 어이 흐리오.

● 전문 풀이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서 입을 한 번이라도 속였기에,
달마저 기울어진 한밤중이 되도록 아직도 찾아올 듯한
기척이 전혀 없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임의 기척인 줄
속게 되는) 내 마음인들 어찌하리오.

1. 임에 대한 원망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o,x)
2. 영탄적 어조를 통해 희망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o,x)
3.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오는 임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o,x)
4. 입을 속여서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o,x)

(3) 사랑이 거짓말이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퇴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갯치 줌 아니 오면 어니 꿈에 퇴리오

● 전문 풀이

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꿈에 보인다는 말은 더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이로다!
나처럼 애가 타서 잠이 오지 않으면 어느 꿈에 보인다는
말인가?

1. 현재 화자는 꿈 속에서 입을 보고 있어 내적 갈등이 심해져 있는 상황이다.(o,x)
2. 잠은 꿈을 꾸기 위한 필요조건인데, 이 잠조차 잘 수 없는 상황은 그만큼 임에 대한 절절함을 드러내는 것이다.(o,x)
3. 내가 임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임이 화자의 발화 속에 드러나고 있다.(o,x)
4.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o,x)

(4) 설월이 만찬한데

설월이 만찬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예리성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마는
그림고 아쉬운 때면 행여 그인가 하노라

1. '바람'은 임과 헤어졌을 당시를 환기하게 하는 소재이다.(o,x)
2. '바람'은 마치 '예리성'으로 들리면서, 임으로 하여금 시적 화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재이다.(o,x)
3.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o,x)
4. 성찰을 통해 시적 화자 자신의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o,x)

(5) 정석가 - a형은 현대어 풀이!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난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난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하신 님플 여해아와지이다

옥으로 연고줄 사교이다
옥으로 연고줄 사교이다
바회 우회 접주하요이다
그 고지 삼동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이 뛰거시아
유덕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난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난
철사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철수산에 노호이다
그 쇼 | 철초를 머거아
그 쇼 | 철초를 머거아
유덕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달
구스리 바회에 디신달
긴헛단 그츠리잇가
즈른 해탈 외오곰 녀신달
즈른 해탈 외오곰 녀신달
신잇단 그츠리잇가

<현대어 풀이>

바삭바삭하는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바삭하는 가는 모래 벼랑에
군밤 닷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아만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아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 꽃을) 바위 위에 꽃아 붙입니다.
그 꽃이 석동이 피어야만
그 꽃이 석동이 피어야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무쇠로 옷을 말라
무쇠로 옷을 말라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혈어야만
그 옷이 다 혈어야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만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이까.
천 년을 외로이 사신들
천 년을 외로이 사신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1. 믿음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의문형 진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o,x)
2. 역설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3.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나무토막으로 당담을 깎아 만들어
벽의 걸이개를 올려 얹히고
이 담이 꼬끼요 하고 때를 알리면
어머님 얼굴이 서산에 기우는 해처럼 늡으시리라.

4. '바위'는 사랑의 위기 속에서도 단단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한다.(o,x)

A5

(1) 규원가

엇그제 저멋더니 허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습 허자니 목이 맨다.

엇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늡어버렸는가? 어릴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이렇게 늡은 뒤에 설운 사연 말하자니 목이 맨다. -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苦(신고)허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호구) 願(원)허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으로, 長安遊俠(장안유협) 경박자를 뽀근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허기 살어름 디되는 듯.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불교의 윤회 사상) 정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집간 뒤에 남편 시중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결혼을 운명으로 여기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 당시 여성의 위상 짐작)
☞ 과거(젊은 시절) 회상

三五 二八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기약)허앗더니, 年光(연광)이 훌훌하고 造物(조

물)이 多猜(다시)하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雪鬢花顏(설빈화안) 어디 두고 面目可憎(면목가증)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꾀소냐. 스스로 慙愧(참괴)하니 누구를 怨望(원망)하리.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 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다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 곧 세월이 베틀의 베을 사이에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밍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님이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 늙고 외로운 신세 자탄

三三五五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있어, 白馬金鞭(백마금편)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여러 사람이 떼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 남편에 대한 원망

因緣(인연)을 긋쳐신들 심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 두 썩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근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피어지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蟋蟀)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님의 얼굴을 못 보거니 그림기나 말았으면 좋으려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리하다. 구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콧은 비는 무슨 일이고? 봄날 온갖 꽃 피고 베틀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 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靑燈을 둘러 노코 錄綺琴(녹기금) 빗기 앉아, 碧蓮花(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차 셋거 타니, 瀟湘夜雨(소상야우)의 댕소리 셋도는 듯 華表千年(화표천년)의 別鶴(별학)이 우니는 듯, 玉手(옥수)의 타는 手段(수단) ②넷 소래 잇다마는, 芙蓉帳(부용장) 寂寞(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肝腸(간장)이 九曲되야 구빅구빅 쓴쳐서라.

들여켜 여러가지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둘러 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곡을 시름에 싸여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댕잉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 년만에 찾아 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만은 업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이 텅 비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 속이 굵이굵이 끊어졌도다.

출허리 잠을 드러 꿈이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의 牽牛織女(견우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七夕 一年一度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조차 쓰쳤는고. 欄干(난간)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디 바라 보니, 草露(초로)는

맺쳐 잇고 暮雲(모운)이 디나갈 제 竹林 푸른 고디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른 사람 수업다 하려니와 薄命(박명)은 紅顏(홍안)이야 날 가뜰니 쯤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고?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 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잇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수를 오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설운 사람 많다고 하려니와 운명이 기구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1.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실의 상황에 안도하고 있다.(o,x)
2. '장안 유희 경박자'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o,x)
3.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o,x)
4. 대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o,x)
5. 풀 속에 우는 벌레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소재이다.(o,x)
6. '모운'은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흥취로 전환하게 만드는 소재이다.(o,x)
7. 임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o,x)

(2) 덴동어미화전가

[중략된 부분의 내용]

부인들이 화전을 부쳐 먹고서 글을 외우거나 노래와 춤으로 즐기다가 어떤 젊은 과부가 개가(改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신의 설움을 토로한다. 그러자 덴동 어미가 나서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한다. 덴동 어미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로 태어나 같은 신분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나 신랑이 그녀를 뛰다 떨어져 죽고 만다. 개가하여 역시 아전 신분의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갔으나, 시집이 이포[吏浦, 구실아치가 공금을 집어쓴 빛]를 많이 지게 되자 그것을 갚느라고 재산을 다 날리게 된다 유랑하던 부부가 경주에서 군노(軍奴)가 경영하는 여각에서 안팎으로 담살이를 하며 누만금을 저축하였으나 피질로 낭군이 죽고 빛은 준 사람들도 다 죽어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이어지는 부분은 덴동 어미가 다시 옹기장사를 하는 울산의 황 도령을 만나 그의 인생 역정을 듣는 부분이다.

[가]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대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가만히 숨숨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낭군은
 홍문(紅門)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
 패가 망신하였으니 흥진비래 그러한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 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苦盡甘來)할까 보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 말이
 우리 서로 붙잡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 보세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
 나는 사기 광우리 이고 가가호호에 도부한다
 조석(朝夕)이면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둘이 먹고
 남촌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하니
 돈백이나 될 만하면 둘 중에 하나 병이 난다
 병구려 약시세 하다 보면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다시 다니며 근사 모아 또 돈백이 될 만하면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도부 장사 한 십 년 하니 장바구니에 틀이 없고
 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산 밑에 주막의 주인하고 굶은비 실실 오는 날에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천둥소리 뷰아치며 소나기비가 쏟아진다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 터를 빼 가지고
 동해수(東海水)로 달아나니 살아날 이 누굴런고
 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망대해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남해수(南海水)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그 주막에나 있었더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먼저 괴질에 죽었더면 이런 일을 아니 볼걸
 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도부가 다 무엇인고 도부 광우리 무여 박고
 해암 없이 앉았으니 역장이 무너져 기막힌다
 죽었으면 좋겠구만 생한 목숨이 못 죽을네라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그 집 댁네가 강권하니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 데 있나 살기만은 못하리라
 저승을 누가 가 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나]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이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맘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晃然大覺) 깨달아서
 덴동 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네.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두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우 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 유수로 씻어 볼까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실실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실실 녹네
 자네 말은 봄 춘 자요 내 생각은 꽃 화 자라
 봄 춘 자 만난 꽃 화 자요 꽃 화 자 만난 봄 춘 자라

1. 재가를 들면서 덴동어미의 상대방 신분이 점차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o,X)
2.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병으로 고생하는 덴동 어미의 모습이 덴동 어미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o,X)
3. 덴동어미가 셋째 남편을 잃고 좌절하면서 넷째 남편을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o,x)
4. 덴동어미는 자신의 발화를 통해 재가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o,x)
5. '청춘과부'가 겪은 남해수에서의 고생은 덴동어미의 발화에 긍정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o,x)

(3) 노처녀가

아무 사람 만나볼 때 헛웃음이 절로 나고
 무안하여 돌아서면 긴 한숨이 절로 나네
 웃지 말고 새침하면 남 보기에 매몰차고
 불평 풀이 하자 하면 심술궂은 사람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이러하기 더 어렵고 저리하기 더 어렵다
 아주 죽어 있자 함이 한두 번이 아니로다
 목숨이 길었던지 무슨 낙을 보려던지
 날이 가고 달이 가며 갈수록 서러운 심사
 어찌하고 어찌하리 베개를 탁 던지고
 입은 채로 드러누워 옷가슴을 활짝 열고
 가슴을 두드리면 답답하고 답답하다

이 마음을 어찌할꼬 맺힌 마음 절로 난다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하랴
 부모 동생 믿다가는 서방 볼 일 아득하다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며
 중매 매파 불러다가 기운 조작으로
 번듯하게 구혼하면 어찌 아니 못 되랴
 이렇게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음식 먹고 체한 병에 정기산을 먹은 듯이
 급히 앓은 광란병에 청심환을 먹은 듯이
 활짝 일어나 앓아 돌콩대를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궁리하되
 내 서방을 내 가리지 남더러 부탁하랴
 내 어찌 미련하여 이 생각을 못 냈던고
 만일 벌써 깨쳤으면 이 모양이 되었을까
 마음 먹고 생각하니 아주 쉬운 일이다.

1. 시적 화자는 현재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o,X)
2. 시적 화자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회피하고 있다.(o,x)
3. 시적 화자가 구혼을 결정한 뒤, 너무 기쁜 나머지 먹었던 음식이 탈이나서 고생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o,x)
4. '베게'를 던지는 행위는 시적 화자를 바라보는 매파의 답답한 마음의 표출로 볼 수 있겠군.(o,x)

A6 기타

(1) 일동장유가 - a형은 현대어풀이!

평상의 소환(疎闊) 하야 공명(功名)의 쓰디 업니.
 진스 청명(淸名) 족하거니 대과(大科) 하야 무엇하리.
 당둥 제구(場中諸具) 업시하고 유산(遊山) 행장(行裝) 출혀 내어,
 팔도(八道)로 두루 노라 명산(名山) 대천(大川) 다 본 후의
 풍월(風月)을 희롱(戲弄) 하고 금호(錦湖)의 누엇더니
 북창(北窓)의 즘을 찌야 세상 기별 드러 하니
 관백(關白)이 죽다 하고 통신스(通信便) 청하다니.
 이 때는 어느 썸고, 계미(癸未) 팔월 초삼이라.
 북궐(北闕)의 하딕(下直) 하고 남대문 내 드라셔
 관왕묘(關王廟) 얼끗 지나 전성서(典牲署) 다드르니
 스힝을 전별(錢別) 하라 만도(滿潮) 공경(公卿) 다 모닷니.
 곳곳이 당막(帳幕)이오 집집이 안마로다.
 좌우 전후 피와 들어 인산인해(人山人海) 되어서니
 정 잇는 친구들은 손 잡고 우탄(吁嘆) 하고
 철 모르는 소년들은 불워하기 측량(測量) 업니.
 석양(夕陽)이 거의 되니 늦늦치 고별(告別) 하고
 상마포(上馬袍) 세 번 노코 차례로 썸나갈시

절월(節鉞), 전비(前陪) 군관(軍官) 국서(國書)를 인도하고
 비단 일산(日傘) 순시(巡視) 녁기(令旗) 스신(使臣)을 피와
 섰다.

내 역시 뒤흘 썸라 역마(驛馬)를 칩더 터니
 가치웃 지로 나장(指路羅將) 깃 쏘고 압희 서고
 마두셔자(馬頭書子) 부촉하고 빵겻마 잡앗고나.
 세피놈의 된소리로 권마성(勸馬聲)은 무슴 일고.
 아모리 말나여도 전례(前例)라고 부더 하니.
 빅슈(白鬚)의 늙은 선비 졸연(猝然)이 별성(別星) 노릇
 우습고 괴괴(奇怪) 하니 늙 보기 슈괴(羞愧) 하다
 <중략>

선둥을 도라보니 저마다 슈질(水疾) 하야,
 썸물을 다토후고 혼절하야 죽게 알니
 다형홀샤 종스상(從使上)은 태연이 안жат고나,
 비방의 도로 드러 눈 굵고 누엇더니,
 대마도 갓갑다고 샤공이 니르거늘,
 고쳐 니러 나와 보니 십 니는 남앗고나.
 왜션 십여 척이 예선츄(曳船次)로 모다 왔니.

<중략>
 점심 먹고 길 썸나서 이십 니는 겨요 가서
 날 저물고 대우(大雨) 하니 길이 즐기 참혹하야
 밋그럽고 쉬는디라.
 가마 멘 다숫 놈이 서로 가며 체번(遞番) 하디
 갈 길이 바히 업서 두던에 가마 노코
 이욱이 슈더(躊躇) 하고 갈 뜻이 업는지라
 스면을 도라보니 텃디(天地)가 어득하코
 일힝들은 간 디 업고 등불은 썸더시니
 지척(咫尺)은 불분(不分) 하코 망망(茫茫)한 대야둥(大野中)
 의

말 못하는 예놈들만 의지하코 안자시니
 오늘밤 이 경상(景狀)은 고단코 워터하디.
 교군(較軍)이 드라나면 낭피(狼狽)가 오죽홀가.
 그놈들의 오슬 잡아 혼드러 쓰줄 뵈고
 가마 속의 잇던 음식 갓갓지로 내어 주니
 지저괴며 먹은 후의 그제야 가마 메고
 촌촌 전진하야 곳곳이 가 이러하니
 만일 음식 업뎃더면 필연코 도주홀썸
 삼경냥은 겨요하야 대원성(大垣城)을 드러가니
 두통하코 구토후야 밤새도록 대통(大痛) 하디.
 <후략>

<▶ 현대어 풀이>

일생을 살아감에 성품이 어설퍼서 입신 출세에는 뜻이 없네.

진사 정도의 청렴하다는 명망으로 만족하는데 놓은 벼슬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과거 공부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없애 버리고 자연 찾아 놀러 다니는 옷차림으로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명산대천을 다 본 후에,

음풍농월하며 금강 유역에서 은거하고 지냈는데,
서재에서 나와 세상 소식을 들으니
일본의 통치자 토쿠다과 이예시계가 죽고 우리 나라에 친선
사절단을 청한다네.

이 때가 어느 때이고 하면 계미년(1763) 팔월 삼일이라.
경복궁에서 임금님께 하직하고 남대문으로 내달아서
관우의 사당 앞을 얼른 지나 전생서에 다다르니,
사신 일행을 전송하려고 만조 백관이 다 모였네.
곳곳마다 장막이 둘러쳐 있고 집집마다 안장을 엮은 말이
대기하고 있도다.

전후 좌우로 모여들어 인산인해가 되었으니
정 있는 친구들은 손 잡고 장도를 걱정하고
철모르는 소년들은 한없이 부러워하네.
석양이 거의 되니 하나하나 이별하고
출발 신호에 따라 차례로 떠날 때에,
절과 부월 앞을 인도하는 군관이 국서를 인도하고
비단으로 만든 양산과 순시 영기가 사신을 중심으로 모여
섰다.

나 역시 뒤를 따라 역마에 올라 타니,
때때옷을 입은 지로 나장이 깃을 꽂고 앞에 서고
마두서자가 부축하고 쌍두마를 잡았구나.
청과 역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권마성은 무슨 일인가?
아무리 말려도 정해진 의식이라고 굳이 하네.
수염이 허영게 센 늙은 선비가 갑자기 사신 노릇함이
우습고 괴이하니 남 보기에 부끄럽다.

<중략>

배 안은 돌아보니 저마다 배멀미를 하여
똥물을 다 토하고 까무라쳐서 죽게 앓네.
다행하도다.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선실에 도로 돌아와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배를 끌려고 마중을 나왔네.

<중략>

점심 먹고 길 떠나서 이십 리를 겨우 가서
날이 저물고 큰비가 내리니 길이 끔찍하게 질어서
미끄러워 자주 쉬어야 하는지라.
가마 맨 다섯 놈이 서로 돌아가며 교대하되
갈 길이 전혀 없어서 둔덕에 가마를 놓고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갈 뜻이 없는지라.
사방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어둑하고
일행들은 간 데 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고 넓고 넓은 들 가운데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왜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오늘 밤의 이 상황은 몹시 외롭고 위태하다.
가마꾼이 달아나면서 낭패가 오죽할까.
그 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보이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을 갖가지로 내어 주니,
저희들끼리 지껄이며 먹은 후에 그제서야 가마를 메고
조금씩 나아가는데 곳곳에 가서 이러하니

만일 음식이 없었더라면 필연코 도주했을 것이다.
삼경쯤이나 되어서야 겨우 대원성에 들어가니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여 밤새도록 몹시 앓았다.

1. 시적 화자의 발화를 통해 조선에서 통신사를 요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o,x)
2. 시적 화자는 백수의 늙은 선비를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o,X)
3. 가마 속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은 왜놈들의 생김새에 대한 연민 때문이다.(o,x)

(2) 제망매가

생사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몰다 이르고 어찌 겁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1.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망매가>의 독특한 점은 시간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사별의 시공간 및 재회의 시공간 제시, 현재, 과거, 미래가 제시되어있으며 이는 모든 존재의 과거와 미래에 해당하는 숙명의 문제를 제기하여 보편적 정서를 획득한다. 특히 먼저 죽은 누이를 늦게 죽을 월명사가 먼저 기다리겠다는 것은 더욱 심오한 종교적 시간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즉, 요절한 이는 윤회를 다시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저러한 맥락의 글이 나온 것이며 비록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누이의 극락왕생을 비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 ① 1행의 생사길은 사별의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② 5~6행은 7행에 함께 태어난 과거와는 달리 누이가 요절할 미래의 상황을 잘 드러내 주는군.
- ③ 8행은 가는 곳을 모르는 것은 비단 누이뿐만 아니라 헤어지게 될 모두의 숙명론적 미래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9행의 미타찰은 1행의 생사길과는 다른 재회의 시 공간을 의

미하는군.

⑤ 10행의 화자가 미타찰에서 먼저 누이를 기다리는 것은 요절하여 윤회 할 누이에 대한 화자의 극락 염원이라고 볼 수 있겠군.

2. 감탄사를 통하여 슬픔과 그에 따른 극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o,x)

3. 시적 화자는 혈육의 죽음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o,x)

4.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적 주제를 비유 또는 상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o,x)

a4-(1) o, x, x, o, x

(2) o, x, x, x

(3) x, o, x, o

(4) x, x, o, x

(5) x, o, x, x

a5-(1) x, o, o, o, x

x, o

(2) o, o, x, x, x

(3) x, x, x, x

a6

(1) x, x, x

(2) 2, o, o, o